진심담은 손편지 그리운 날엔 — 우정박물관

가끔 손편지를 쓰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 중학생 때는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며 친구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했고, 고등학교 때는 군 장병 아저씨와 시답지 않은 이야기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편 대체 통신수단인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편지를 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길을 걷다 빨간 우체통을 마주하면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글·사진 김효정

POSTAL MUSEUM

우정 역사의 발자취를 담다

충남 천안에 우정박물관이 개관한 것은 2004년 2월, 서울중앙우체국에 있던 것을 이전하며 우정공무원교육원 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우정박물관은 1884년 우정총국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우정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우정인재개발원 정문으로 들어서면, 우정박물관이라는 현판이 바로 보인다. 돔형 천장에는 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유리를 사용해 개방감을 줬다. 그래서인지 부서지는 듯한 햇살이 가득한 로비에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박물관 앞에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우편제도를 도입해 우정총국을 개설한 금석 홍영식 선생의 흉상이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은 우정역사관과 우정문화관으로 나뉜다. 우정역사관에는 근대 우정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품이 마련되어 있다. 홍영식 선생은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1881년), 보빙사의 부사 자격으로 미국(1883년)을 방문했다. 그는 고종황제에게 우편제도의 시급성을 알리고, 1884년 설립된 우정총국의 초대 총판으로 임명되었다.

연대별로 정리된 한국 우정의 변천사가 흑백사진부터 컬러사진에 이르기까지 잘 정리되어 있다. 우체국 건물의 변화도 눈에 띈다. 우정총국에서 한성전보총국, 경성우편국, 조선총독부 체신국, 포스트타워 서울중앙우체국, 여의도우체국 건물의 생김새만큼이나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오랜 기억을 끌어 올리게 만드는 다양한 우체통과 정모, 배지, 이름표, 단추, 그리고 우체국의 심볼마크까지 관람객의 재미를 더한다. 그리고 우체국의 마스코트이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집배원. 우체국이 가깝게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에는 오매불망 그리운 이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집배원은 반갑고 고마운 존재였다. 집배원의 헬멧, 가방, 복장의 변화를 보며, 영화 속 한 장면이 그려지기도 한다.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우체통 색상과 형태도 시선을 끈다. 독일, 캐나다,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기능은 같지만, 모양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나라의 우체통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음을 전달하는 상자이기 때문인지, 각각의 매력이 차고 넘친다.

우표 수집과 인쇄 방법 등 우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사람들에게 우표는 그저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 가격을 지불하고 붙이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우편에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우표는 보통, 기념, 연하, 특별, 시리즈, 캠페인, 항공, 자선 우표 등이 있다. 또 우편에 사용된 사용필 우표는 깨끗하고 일부인이 선명한 것을 골라 우표에 날인된 일부인의 종류별로 우표를 수집했다. 이 밖에도 우표 인쇄 방식이나 우표 디자인 과정 등 우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손편지를 써볼 수 있는 작은 탁자에서 평소 고마웠던 사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으니, 몇 글자라도 쓰면서 잠시 시간을 묶어 둬도 좋을 듯하다.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

각종 지로용지와 광고물만 가득한 우편함에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 장면은 이제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은 아닐까?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생각지도 못한 손편지를 받는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체국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e-그린우편, 경조카드, 쇼핑, 국제특송,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그린우편은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하면 우편물로 제작해 받는 사람에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맞춤형으로 편지지나 봉투를 고를 수도 있고, 엽서와 카드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우정문화관에는 우편, 금융 등 실제 우체국 업무에 사용되었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창구 근무복, 각종 인장류, 택배 용지, 택배 저울과 같은 물품도 다양하게 마련해 두었다. 오래된 전함과 우표류 보관 상자, 우편 자루 걸이 등에서 사용자의 흔적도 그대로 남았다. 우체국은 1905년부터 예금업무를 시작했다. 1929년에는 보험 업무에 첫 발을 내딛고, 1952년부터는 우편 연금 및 국민생명보험으로 재개했다.

힐링하며 쉬어 가는 우편테마공원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에는 우편테마공원이 있다. 공원에는 우편열차와 밀레니엄 우체통이 있다. 1884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근대 우편 사업이 시작되면서 집배원이 우편 수레와 말을 이용해 우편물을 운송하다가 1904년 11월 경부철도가 부설되며 철도 운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편물 운송 시간을 크게 줄여 우편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런데 전국이 고속도로망으로 연결되고, 주요 지역에 개국한 우편집중국 간 전용 차량이 생기면서 우편물을 주고받는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102년간 지속된 철도운송이 2006년 5월에 폐지된 이유다. 이곳에 전시된 우편열차는 내부를 전시관으로 조성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밀레니엄 우체통은 현대백화점이 정보통신부에 기증한 것으로, 1999년 새천년 맞이 행사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너비 1.8미터, 폭 1.4미터, 높이 4미터의 우체통은 세계 최대 규모로 2000년 2월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우정박물관 안에서 쓴 손편지를 이곳에 투함하면 편지를 배달해 준다.

info.

우정박물관

관람시간
09:00 ~ 18:00
※ 관람료 무료

휴관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현재 박물관 내부사정에 의해
토요일 휴관

위치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길
11-14(유량동 60-1)

문의
041-560-5900